

# 문화재연구부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실과 사무처, 그리고 역사문화연구소로 조직되어 있다. 연구실에는 지역개발연구부 등 3개부와 기획조정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에는 총무·경리팀이 운영되고 있다. 역사문화연구소에는 충청학연구부와 문화재연구부등 2부가 편제되어 있다. 본란에서는 제일 먼저 선인들의 지혜가 살아있는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화재연구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충남에는 백제시대의 고도(공주, 부여)가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은 빠른 개발과 정에서 많은 양이 안타깝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연구부는 선조들의 숨결이 스며있는 문화유산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동시에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문화재정책과 문화유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충남의 문화자원을 보존·계승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경쟁력 제고,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문화재들이 훼손되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문화재조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의 중

요성으로 인해 개발사업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적인 예로 서울 풍납동 지역의 경우 백제 초기의 토성으로 인해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그 일대가 보존되게 되었으며, 경주의 경우 경부고속철도의 노선이 변경된 사례 등이 그것이다. 충남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부여의 경우 능산리 지역에 계획하였던 부여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백제시대 고분의 발견으로 그 부지를 옮겼으며, 공주-부여간 백제큰길의 경우 정지산유적으로 인해 그 지역을 터널로 통과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부여지역 국도 건설 중에 조사된 염창리고분군의 경우에도 현장보존이 결정되는 등 많은 개발사업이 문화재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전에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



어 문화재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 문화재연구부는 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사전 조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이 문화재의 훼손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부에서 진행한 연구로는, 1999년 「예산 임존성 문화유적 지표조사」 외 2건, 2000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휴게소부지 발굴조사」 외 15건, 2001년 「아산 영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부지내 발굴조사」 외 22건 등이 있으며, 2002년에는 「부여종합체육시설예정부지 발굴조사」, 「천안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부에서 조사한 유적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2000년도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휴게소부지」하행선에서 발굴 조사된 장선리유적이 사적 제433호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와 원삼국시대 토실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이와 관련된 원형유구 31기, 석관묘 1기, 옹관묘 1기와 마한시대의 토실유구 38기, 장방형 수혈유구, 부뚜막시설이 갖추어진 방형주거지 1기, 토기가마 1

기, 무덤 1기와 야외 노지 등이다.

그런데 이들 유구 가운데 마한시대의 토실주거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조사 보고된 유적으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중국 삼국시대(220~265)를 기록한 역사서인 《삼국지》마한조에 기록된 마한의 생활습속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면, 「거처는 草家에 土室을 만들어 사는데 그 모양이 마치 무덤과 같았으며, 그 문은 위 부분에 있다. 온 집안 식구가 그 속에 함께 살기 때문에 長幼와 男女의 분별이 없다」(居處作草屋土室形如 其戶在上 舉家共在中 無長幼男女之別)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이 기록은 우리나라 마한시대의 주거 형태 및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주 탄천면 장선리에서 조사된 토실주거를 통해 고고학적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장선리유적은 2001년 9월 12일 사적 제433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는 위치를 약간 북편으로 옮겨 시설하게 되었으며, 이 유적은 앞으로 휴게소의 명소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문화재연구부는 문화재의 발굴조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 아울러 충남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강 중 원 (문화재연구부 연구위원)